

오피니언

光日春秋

김승환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가 상류층 20%가 국가 부의 80%를 차지한다는 '80/20'의 법칙을 찾아낸 후 소수 집단의 핵심 시장원리로서 또한 선택과 집중의 경영전략으로서 각광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기에서 그동안 무시되었던 다수의 힘을 드러내는 '롱테일(long tail) 법칙'이 새로운 대안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롱테일'은 2004년 이후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 시작한 키워드로 최근 이 개념의 창시자인 미국 인터넷 비즈니스 잡지의 크리시 앤더슨 편집장이 한국을 방문하며 국내에 더욱 널리 알려지고 있다.

'롱테일 법칙'은 다수의 소액구매자의 매출이 상위 20%의 매출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명 '역-파레토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인터넷 서점 아마존의 판매량을 분석해보니, 안 팔리는 책도 모두 합치면 소수의 베스트셀러의 매출보다 더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한다. 이른바

'롱테일 법칙'이 온라인 비즈니스의 새로운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롱테일 경제학은 현재 위기에 처한 과학기술, 특히 기초과학의 지원 패러

롱테일법칙, 기초과학 지원에 적용을

다임의 전환에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80년대 이후 제한된 국가 지원 속에서 고속 경제성장을 위한 응용개발 연구와 국가 과학기술 로드맵에 따른 과도한 선택과 집중은 연구의 대형화·집단화 추세와 산업 투자비중의 강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전략 아래 오랫동안 '솔리'이 조장된 결과 대학에서의 기초과학 분야와 창의적 소규모 개인 연구는 '정글의 법칙' 속에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다.

한 예로 올해 과학재단의 핵심기초 연구비의 경우 2천여 명의 연구자가 신청했

지만 그 중 87.2%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에는 연구비 신청 자체를 포기한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부산 D 대학의 모 중견교수의 경우 1년에 SCI 논문을 6편씩 쓰는 연구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는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였다.

두뇌한국(BK21)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도 해외에 수시로 보내면서, 막심 엄청난 투자를 통해 어렵게 배출된 고급 과학 인력은 실제 현장에서 손을 놓고 놓고 있는 현실이다.

기초과학 지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 가지 대안으로 롱테일 법칙의 적용을 통한 '풀뿌리 기초과학 생태계 살리기'를 들 수 있다.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선택과 집중에서 더 나아가 다수 개인연구자에 대한 저변 투자를 크게 확대하여 연구역량의 총합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기초과학 생태계를 피라미드형으로 복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응용개발 대비 기초분야의 정부지원의 비율이 매우 낮다.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학계와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과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초과학의 지원 패러다임 전환과 가치 극대화

를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 클린턴의 '창의적 자본주의'처럼 '롱테일법칙' 전략에 따른 기초과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적극적인 국가 지원은 과학자의 사기진작을 넘어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 문재 맑은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떠나 정부·교육계·과학계·언론이 모두 힘을 합쳐서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이태이론물리센터 사무총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 구간·洞간 경계조정 시급하다

광주시의 현안인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지난 10여년 간 지역별 인구 및 재정, 행정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돼 구(區)·동(洞)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일부 기반시설의 지역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 도심권인 동구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15만명의 자치구 하한선마저 무너져 11만 명에 불과하다. 반면 북구는 동구의 4.5배가 넘는 45만명이며, 광산구는 17만명에서 30만명으로 증가했다. 서구와 남구의 인구격차도 이미 1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자치구 간 인구편차는 주민 복지 및 행정서비스의 격차를 불러 광주 구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북구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인구 수가 타 구에 비해 2~3배가량 많다. 주민 1명에게 지출되는 구 예산 역시 동구는 101만원인데 비해 북구는 47만원에 불과하다. 북구

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동구 역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자치구로서의 존립마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자치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논쟁만 불러일으켰다. 특히 정치인들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최근 박광태 시장이 "표를 계산하는 사람들 때문에 구 간 경계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은 주민편의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일부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입지에 따라 논의의 문제가 아니다. 자치구 간 인구격차는 지역별 경쟁력 차이를 불러오고 주민 불편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광주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도 행정구역 조정에 발목을 잡아서서는 안 될 것이다.

해수욕장까지 건축폐기물 매립했다니...

청정해역 안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건축폐기물을 무더기 불법매립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양경찰은 해수욕장 백사장 100m 구간에 콘크리트 덩어리 등 4t 정도의 건축폐기물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폐기물 불법 처리수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대법해지고 있다지만 해수욕장까지 매립했다니 어이가 없다.

해수욕장은 13일 개장됐지만 주민들은 걱정이다. 명사십리는 청정해역과 천혜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대표적 관광명소다. 지난해 안도읍과 신지면을 잇는 다리가 완공돼 60여만명의 피서객들이 몰릴만큼 인기를 끌었다. 주민들은 이번 사태로 여름장사에 불통이 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과 시공업체 및 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상대로 불법 매립과정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산업폐기물의 불법처리 수법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지만 해수욕장까지 폐기물에 오염되게 공사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군청 공사의 폐기물이 명사십리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셈이다.

안도군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건축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만큼 불법매립은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할 상황이 아니다. 폐기물을 위탁처리했다고 하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됐다.

해수욕장은 13일 개장됐지만 주민들은 걱정이다. 명사십리는 청정해역과 천혜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대표적 관광명소다. 지난해 안도읍과 신지면을 잇는 다리가 완공돼 60여만명의 피서객들이 몰릴만큼 인기를 끌었다. 주민들은 이번 사태로 여름장사에 불통이 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과 시공업체 및 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상대로 불법 매립과정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산업폐기물의 불법처리 수법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지만 해수욕장까지 폐기물에 오염되게 공사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군청 공사의 폐기물이 명사십리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셈이다.

기고

김동화



우리의 전통 풍수사상에는 땅에 대한 깨달음과 자연에 대한 세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지혜가 담겨있다. 수 천 년 세월을 꿰뚫어 살아내려 온 우리 한민족의 체합과 정서가 녹아있는 것이 바로 풍수사상인 셈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집을 지을 때면 '남향, 동문'을 선호해 온 것도 이 풍수사상에 따른 것이리라 할 수 있다.

최근 20~30년 새 전국에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서구에서 유입된 아파트 문화가 주거문화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남향 아파트를 최고로 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주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지만 남향(南向)과 동문(東門)

기공설비가 최근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태양열은 공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에 비해 극히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무한 에너지원이다. 이런 태양열 공급시설을 남향 주택에 설치하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최근 긴급지시를 통해 '전남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에는 지역의 빼어난 경관을 보전하고 자연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전담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 사업 등 추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남향건축이 가능한 곳에 입지를 정하도록' 22개 시·군 및 관련기관에 협

남(南)으로 집을 내겠소

으로 대표되는 풍수사상은 아직까지도 한국민의 가슴에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다. 그중에서도 겨울과 여름은 건물의 방향에 따라서 실내온도 및 체감온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물론 남·남향비용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남향 건물의 경우 겨울엔 두터운 벽이 차가운 북풍을 막아주고, 또 따뜻한 태양이 건물 내부를 비추는 시간이 길다. 반면 여름에는 남풍이 불어 건물 내부가 시원하고 태양이 건물 깊숙이 비추는 시간도 겨울에 비해 훨씬 짧아, 건물 내부가 시원한 편이다.

우리 전라남도는 자연친화적 건축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관 가꾸기, 행복마을 추진, 남향건축물에 태양열 공급 시설 설치 등은 타지역에 비해 기후·지리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전남도만의 특징이다. 이 가운데 태양열 주택 및 전

조를 요청한 바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선진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반영 구조적이고 개성 있는' 건축물이다. 이들 건물을 보노라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우리에게 지금 '집 한 채를 짓더라도 제대로 짓겠다'는 장인의식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필생의 작품을 남긴다는 장인의식으로, 후대에 영원히 빛나는 건축물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미래의 자원으로 가꾸어 나아가야 하며, 그 자신을 우리의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

모임·행사때 마실을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급해야

최근 시내 빌딩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 두 명이 커다란 비닐봉지에 가득 담긴 생수병을 하나하나 버리고 있었는데 그 양이 엄청났다. 생수병이 화장실 구석 비닐봉지에 가득 쌓여 있었고 아주머니는 생수병에 담긴 물을 하수구에 쏟아붓고는 병만 다른 봉지에 담았다. 궁금해서 아까운 생수를 왜 버리느냐고 물어 봤더니 아주머니는 이곳에서 수시로 열리는 행사 때 수거된 병인데 거의 매일 이렇게 버린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수자원 부족 국가인데 이렇게

함부로 아까운 물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 가면 주최측에서 개인들에게 생수를 지급하는 것이 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행사 때는 대량의 생수병이 공급된다. 그런데 대부분 참석자들이 행사가 끝나고 생수병을 가져가지 않으니 쓰레기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마구 버려지는 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큰 물병 대신 작은 물병을 나눠 주거나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강성구·광주시 동구 운림동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몇 년 전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하원의원을 하셨던 분에게 들은 이야기다. 그분이 한국사람으로써 백인지역에서 출마를 하려할때 도대체 백인들에게 자기 어떻게 보여 지고 있을까가 궁금하여 여론조사를 하였다. 설문내용 중 하나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남성의 출신 국적을 묻는 것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째가 한국 남성이었다고 한다.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나 자신 한국남자이지만 훨씬 전부터도 한국남자들 정말 문제라고 늘 느껴왔었기 때문이다.

특히 여자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한국 남자들의 정말로 세계 챔피언급 꼴불견들이다. 남자로 태어난 것이 자기가 똑똑해서 된 특권인 줄로 안다. 자신이 왕인줄로 착각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 한다. 집에서 여자 도와주는

구억질나도록 몸에 배인 위선, 허세, 고집불통, 권위주의, 사대질하며 큰 소리로 자기주장만을 늘어놓기, 혹은 아니면 백만이 있을 뿐 타협하면 '사구라', 자기만이 정통이요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천 년 세월을 꿰뚫어 살아내려 온 우리 한민족의 체합과 정서가 녹아있는 것이 바로 풍수사상인 셈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집을 지을 때면 '남향, 동문'을 선호해 온 것도 이 풍수사상에 따른 것이리라 할 수 있다.

최근 20~30년 새 전국에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서구에서 유입된 아파트 문화가 주거문화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남향 아파트를 최고로 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주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지만 남향(南向)과 동문(東門)

내가 만약 여자라면 나는 절대로 한

“한국남자들 정말 문제다”

것은 쪼다들이나 하는 것이고 짓눌려 강제로 순종을 받으며 손 하나 까다 않고 마누라 부러먹어야 남자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진짜쪼다들이다. 자기 여자는 예 없고 손에 무거운 것 들어도 체신 머리 없게 보인다하여 거들어 주지 않으면서도 남의 여자에게는 무슨 기사나 되는 양 그리도 친절하다. 자기 여자는 5불만 해도 험프다고 잔소리하면서 술 집 여자에게 최고로 통이 큰 사람인양 50불짜리 100불짜리를 톱으로 썰어 넣어주는 허세쟁이다.

미국에서도 여자를 구타하여 제일 많이 걸려든 사람은 한국 남자요 술을 제일 많이 퍼먹는 것도 또 담배를 제일 많이 피우려는 것도 역시 한국남자다. 내가 골프를 하는 것도 한국남자 뿐인데 거기가다가 계산이 틀리다하여 주의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팔짱잡 가운데서 큰소리로 싸움박질하다가 걸려든 것도 한국남자 뿐이다.

국 남자에게 시집가지 않을 것이다. 사람 자체들은 괜찮은데 어쩐지 그 스타일이 싫다. 나의 의견이 과장된 것이라 생각한다면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딸애들에게 물어 보라. 놀랍게도 또 불행하게도 많은 여자애들이 한국 남자에게 시집가지 않겠다고 한다. 그것은 평생시 가정에서 아빠가 엄마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네 딸들은 그렇게 느끼게 된 것이다.

속이 비어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다 이아몬드 반지나 더 비싼 승용차로 외부를 자랑하고 과시를 해야 되듯이 그 토록 목에 힘을 주고 권위를 세우려고 인간됨을 써야 되는 한국 남자들은 그 만큼 큰 열등의식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성 여러분들은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지간하면 못이긴 채하고 당해주는 아랑을 베풀어 주기를 부탁한다.

▲남민배·광주시 광산구 고통동

집 가까운 보호시설 봉사활동을 추천하고 싶다

최근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장애인 생활 시설에 일일 봉사체험을 다녀왔다. 천사의 집 3층은 중증장애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의 일부는 중환자로 전혀 거동을 할 수 없었다. 나머지 분들은 활동이 가능하나 몸이 불편하고 언어장애가 있었다.

우리는 중환자방과 주방 등으로 나누어 다양한 일을 했다. 그분들의 눈빛과 행동은 밝고 건강해 이곳을 '천사의 집'이라 부르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천사의 집 식구들은

몸이 부자연스럽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외롭고 몸이 불편한 그분들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지를 느꼈다.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 나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려고 한다면 공공서같은 편한 곳 말고 가까운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 보호시설 등의 봉사 활동을 추천하고 싶다.

▲남민배·광주시 광산구 고통동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福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1간. 대표전화 2200-500, 222-8111(지사·지국/독자신문·배달안내). www.kwangju.co.kr